

김달진, 제7회 홍진기창조인상 수상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이 제7회 홍진기창조인상 문화예술 부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달진 관장은 중·고교 시절부터 미술자료를 수집하여, 2002년 미술잡지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개관, 2013년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창립 등 한국 미술계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저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공저)·『대한민국미술인인명록 I』(편저)을 출간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과 2014년 한국미술저작 출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수집가적 면모는 충남중학교 재학시절, 담뱃갑·껌상표·우표 등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다. 기념우표가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우체국으로 달려가던 소년 김달진은 『주부생활(主婦生活)』·『여원(女苑)』·『여상(女象)』 등 여성잡지에 실린 세계의 명화를 오려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술자료 수집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서울로 상경한 후에는 청계천 주변의 헌책방을 돌며 미술교과서·미술전집 등을 사 모았다. 김달진 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잡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그림 한 장만 떼어서 팔라고 서점 주인을 조르기도 했다. 필요한 부분만 오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잡지 원본을 보존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김달진 관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2년 여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한국현대미술 60년展>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억한다. 인쇄물로 된 서양의 명화만 보다가 실물로

접하게 된 우리 근대미술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그에게 일종의 환희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사동 전시장을 돌며 전시회 도록을 수집했고, 『월간 전시계』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업무경험을 통해 수집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김달진은 미술자료를 수집·정리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잡지에 실린 미술연재물에 대한 기록을 시작으로, 미술단체카드·미술인명카드·주제별 미술기사 색인카드 등을 정리했으며, 1978년에는 신동아의 논픽션 모집에 「한국의 근대미술 자료」를 응모하기도 했다. 전시회 일지에는 전시명·기간·장소·주요출품작가·해당전시의 언론보도 목록 등을 기록했다. 『월간 전시계』에 근무하며 「근대작고미술가인명록」·「근대미술단체 및 주요 전시회」·「우리의 근대미술과 일본」 등을 연재했고, 이후 1년 동안의 전시회 기록들을 『열화당미술연감』(1984~1989)에, 전해년도 한국미술계를 정리하여 『연합연감』(1990·1991·1992·1995·1998)에 제공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예연감』에는 2006년부터 매년 미술계 현황분석과 전시회 목록을, 월간미술에서 발행하는 『한국미술연감』에도 몇 년간 전시색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전경



김달진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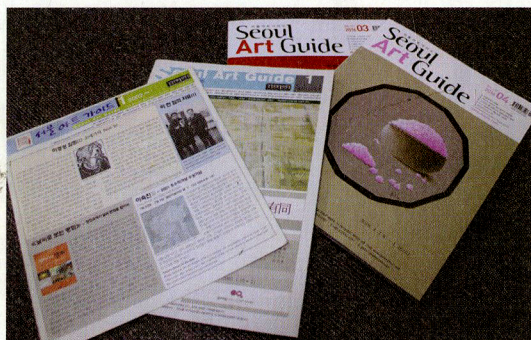
또한 미술자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선미술』 1985년 겨울호에 「관람객은 속고 있다 - 정확한 기록과 자료보존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여, 작가의 화력·패플릿·연표·연보·연감 등에서 오류 또는 오기의 실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예를 들면, 1983년의 전시회 기록이 『한국예술지』에는 1,272건, 『문예연감』 1,695건, 『한국미술연감』 1,775건, 『열화당미술연감』 2,005건으로 서로 다름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신문기자는 인터뷰에서 오류·오기에 대한 지적이 지나치게 편집광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독 눈에 잡히는 듯하다. 잘못된 사실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달진 관장은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 외에 비창작 미술인인 미술평론가·미술사가·큐레이터·미술행정가·작품보존 및 수복전문가 등에 대한 사항도 기록·관리하여, 『서울아트가이드』 미술계인명록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0회 동안 연재했으며, 이를 보완하여 2010년 『대한민국미술인 인명록 I』을 발간하여 654명의 비창작미술인을 소개했다. 『대한민국미술인 인명록 I』에는 1850년 이후 태어난 4,909명의 미술인이 수록되어 있으며, 김달진 관장은 이를 통해 “이등별만 기억하지 말고 이등별, 삼등별도 기억하여 우리 미술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자”는 소신을 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인사동과 사간동 일대를 돌며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 당시 화랑사람들은 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모아 무엇을 하느냐 물으면서도 내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때 얻은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며 자료를 받아오지 않아도 많은 곳에서 미술관련 자료들을 발송해온다. 더구나 김달진미술연구소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잡지에 신간소개를 요청하며 미술도서들을 보내주고있다.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세월동안 자료를 모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미술기초자료로 정리해 미술계 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공적가치를 창출해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계도 많이 느낀다. 첫째는 자료보존을 위한 공간과 예산문제이다. 둘째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자료들의 매체와 그만큼 모호해진 분류기준이다. 셋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가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쉬이 될 일은 없지만 이전까지 그래왔듯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일들도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며 미술계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전했다.

홍진기창조인상은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과학기술·사회발전·문화예술의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한미약품연구센터(소장 권세창)의 지속형 바이오신약 개발팀(과학기술 부문), 프로그사 이세돌 9단(사회발전 부문), 보존기록물 전문가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문화예술 부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9일(월)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상금 5,000만원과 상패 및 메달이 주어진다. 문의 : 사무국 02)730-6216



서울아트가이드



양 손 가득 수집한 자료를 든
1995년의 청년 김달진